



지난 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KIA 선수들이 5-2로 재역전승을 거두고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호지세’...우승 고삐를 죄라

〈騎虎之勢〉

KIA, 12일 롯데·14-15일 키움전



2024 프로야구 대권을 노리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정규리그 우승 초읽기에 들어간다.

9일 현재 KIA는 80승50패(2무)를 기록하며, 2위 삼성에 7게임 앞선 압도적인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정규리그 우승 매직넘버 '6'을 남겨둔 KIA는 어지간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상 시즌 1위를 예약한 상태다.

올 시즌 잔여경기 12개임을 남겨둔 가운데, 이 중 반타자만 해도 자력으로 7년 만에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다.

이번 주는 총 3경기를 갖는다.

프로야구 팀별 순위 (9일 현재)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KIA	80	50	2	0.615	0
2	삼성	73	57	2	0.562	7
3	LG	68	60	2	0.531	11
4	두산	65	65	2	0.500	15
5	kt	64	65	2	0.496	15.5
6	SSG	61	67	2	0.477	18
7	한화	60	66	2	0.476	18
8	롯데	57	66	4	0.463	19.5
9	NC	58	68	2	0.460	20
10	키움	54	76	0	0.415	26

‘우승확률 95%’...남은 12경기중 반타자 승률이면 자력 우승 확정

양현종, 개인통산 180승 '-1'...김도영, 국내 선수 첫 '40-40' 주목

먼저 오는 12일 롯데와 맞대결을 펼치고, 하루를 쉬 뒤 14일부터 키움과 주말 2연전을 치른다.

만약 KIA가 3게임을 모두 이기고, 2위 삼성이 3패 이상을 하면 오는 15일에 우승 매직넘버를 모두 소멸시키고,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다.

물론 그럴 확률은 낮지만, KIA의 최근 기세라면 늦어도 다음주에는 우승 삼페인 마개를 열 것으로 보인다.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타선이 그야말로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어서다.

최근 10경기에서 8승2패를 거둔 동안 팀 타율은 0.331(359타수 119안타)를 기록하며, 2위 삼성(0.277)을 압도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타점(71점) 1위, 득점(72점) 1위, 루타(186) 1위, OPS(0.896) 1위 등 대부분 공격지표가 최상위권에 올라있다.

김선빈(0.486), 나성범(0.375), 김도영(0.353), 최원준(0.333), 소크라테스(0.326), 박찬호(0.316) 등 주전 선수들은 물론이고, 서건창(12타수 8안타)과 홍중표(5타수 4안타), 박정우(10타수 4안타)를 비롯한 백업 요원들까지 방망이가 펄펄 날고 있다.

KIA가 한국시리즈 직행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이 가공할 만한 공격력에 있다.

같은 기간 선발 투수 부재에 따른 평균자책점(4.96)이 리그 7위로 다소 쳐져있지만, 화끈한 화력으로 마운드 약점을 메우고 있는 셈이다.

한편, KIA는 시즌 마지막 풍성한 대기록도 쏟아낼 전망이다.

‘대투수’ 양현종은 1승만 보태면 개인 통산 180승이라는 금자탑을 쌓게 된다. 이는 ‘전설’ 송진우(210승)에 이은 KBO 역대 2번째 대기록이다.

아울러, 52이닝만 더 채우면 송진우(3천30이닝)에 이어 KBO 통산 2번째로 2천5백이닝에 도달하게 된다.

게다가 이번 시즌 162이닝을 던진 양현종은 KBO 최초 10시즌 연속 170이닝 투구 기록에도 단 8이닝만 남겨두고 있다.

나성범은 1안타만 추가하면 KBO 역대 33번째로 1천700안타 고지에 오른다.

이르면 오는 12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기록 달성 유력하다.

지난 8일 KBO 역대 3번째로 '3(홀런)-30(홀런)-30(도루)-100(타점)-100(득점)' 대기록을 작성한 김도영은 남은 12경기에서 5홀런과 2도루를 추가하면 국내 선수로는 최초로 '40(홀런)-40(도루)' 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주홍철 기자



9일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폐회식에서 기수 최용범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LA 재회 기약”... 파리 패럴림픽 화려한 폐막

‘장애 넘어선 투혼의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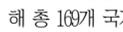
한국, 금 6·은 10·동 14개 종합 순위 22위...목표 초과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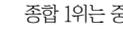
12일간 프랑스 파리를 밝힌 2024 파리 패럴림픽 성화가 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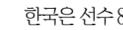
지난 달 29일 개막한 파리 패럴림픽은 9일 프랑스 파리 인근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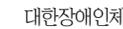
파리 패럴림픽엔 난민 선수단을 합해 총 169개 국가패럴림픽위원회(NPC) 소속 4천567명이 출전했고, 22개 종목에서 549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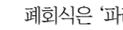
종합 1위는 중국(금메달 94개)이 차지했고, 영국(금메달 49개), 미국(금메달 36개), 네덜란드(금메달 27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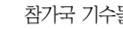
한국은 선수 88명(남자 46명, 여자 37명)을 포함한 177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로 종합 순위 22위에 올랐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당초 이번 대회 금메달 목표를 5개로 잡았으나, 한국 선수단은 이를 초과 달성했다.



폐회식은 ‘파리는 날마다 축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참가국 기수들은 단복을 입었던 개

/연합뉴스



양용은이 9일 열린 PGA 투어 챔피언스 어센션채리티클래식 마지막 날 랭거와 동타를 이룬 후 이 어린 연장전에서 챔피언 퍼트를 성공시킨 후 주먹을 불끈 쥐며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양용은, PGA 투어 챔피언스 첫승

72번째 도전...연장승부 끝 ‘골프 전설’ 랭거 제압

양용은(62)이 미국 시니어 무대에서 첫 우승을 따냈다.

양용은은 9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노우드 힐스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챔피언스 어센션채리티클래식(총상금 20만 달러) 최종일 연장전에서 베른하르트 랭거(독일)를 제쳤다.

둘은 최종 3라운드를 합계 13언더파 200타로 마쳐 18번 홀(파4)에서 연장전을 벌였다.

양용은은 5언더파 66타를 쳤고, 랭거는 7언더파 64타를 몰아쳤다.

만 50세 이상 선수가 출전하는 PGA 투어 챔피언스에서 2022년부터 뿔 양용은은 데뷔 3년 만에 72번째 출전 경기에서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양용은은 지난 7차례 대회에서 준우승 두 번과 3위 세 번 등 우승 기회가 없지 않았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해 그동안 애를 태웠다. 특히 신인이던 2022년 이 대회에서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에 타가 뒤져 2위에 그쳤던 아쉬움도 말끔하게 털어냈다.

2009년 PGA 챔피언십 때 당대 최고의 골퍼 스타 타이거 우즈(미국)를 최종일 맞대결에서 제압하고 PGA 투어 첫 우승을 이뤄냈던 양용은은 이번에는 시니어 투어에서 최고령, 최다승 기록을 지닌 ‘전설’ 랭거를 제쳤다.

PGA 투어 챔피언스에서 한국 선수 우승은 메이저대회인 시니어 오픈 등 2승을 올린 최경주에 이어 양용은이 두 번째다.

/연합뉴스

“방심은 없다”... ‘오만 쇼크’ 넘고 첫 승 쏟아

홍명보호,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표 3차예선 오만전

선수 구성·전술 ‘변화’...최전방 오세훈 가능성

20년 전 한국 축구에 ‘쇼크’를 줬던 오만을 홍명보호가 ‘첫 승의 땅’으로 바꿀 수 있을까.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0일 오후 11시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카부스 경기장에서 오만을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2차전을 치른다.

홍명보호는 출범 첫 경기이기도 했던 1차전에서 약체로 분류되는 팔레스타인과 홈에서 0-0 무승부에 그쳐 팬들에게 충격을 안긴 터라 이번 오만 원정에서 반드시 승전고를 울려야 한다.

오만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76위로 한국(23위)보다 53계단 아래에 있다. 그러나 한국, 요르단과 함께 B조 2위권을 다툰 거로 보이는 이라크와 원정 1차전에서 0-1로 석패하는 등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을 겸비한 공격력이 위협적이라는 평가다.

선수들 대부분이 오만 리그에서 뛰고 있어 조적력도 좋다.

체코를 2020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8강으로 이끈 아로슬라프 실라비 감독이 지난 2월 오만 지휘봉을 잡은 뒤 3승 1무 1패를 거두는 등 최근 흐름도 상승세다.

오만은 한국 축구에 굴욕적인 패배를 안긴 경험도 있다.

한국은 2003년 10월에 열린 2004 중국 아시안컵 최종예선 오만 원정 경기에서 1-3으로 패한 바 있다. 바로 ‘오만 쇼크’라는 이름으로 한국 축구사에 기록된 경기다.

한국 축구는 이번에도 승리하지 못하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빨간불’이 켜진다.

논란 속에 선임된 홍 감독을 향한 경질 여론은 더욱 확산할 수 있다. 홍 감독은 기존 선발팀 대부분을 유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오만전을 앞둔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8일 오후(현지시간) 알 시브 스타디움에서 열린 팀 훈련에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지한 채 나섰던 팔레스타인전과는 다르게 전열에 일정 부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최전방 자리부터 변화가 예상된다. 팔레스타인전에서는 주민규(울산)가 선발로 나섰지만, 이번엔 오세훈

집 여론은 더욱 확산할 수 있다. 홍 감독은 기존 선발팀 대부분을 유

또 팔레스타인전에서 몇 차례 실수한 베테랑 김영권(울산) 대신 다른 센터백이 김민재(원연)의 파트너로 나선 전망이다. 김영권을 대체할 후보로는 몸싸움에 능한 정승현(알와슬), 지능적인 수비가 강점인 조유민(샤르자), 유럽파 기대주 이한범(미트윌란) 등이 있다.

/연합뉴스